

# 타과 의사들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

고 경 봉 · 이 희 상\*

Nonpsychiatric Physicians' Attitudes toward Psychiatry

Kyung Bong Koh, M.D., Ph.D., Hee Sang Lee, M.D.\*

— ABSTRACT ————— *Korean J Psychosomatic Medicine 6(1) : 13-21, 1998*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nonpsychiatric physicians' attitudes toward psychiatry. 129 physician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regarding attitudes toward psychiatry. A majority were favorable about psychiatric education, psychiatric consultation, psychoanalysis, students' choice of psychiatry as a career, and psychiatrists. Staff were more positive toward psychiatry than residents, and senior staff were more positive about psychiatry than junior staff. Overall,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ttitudes toward psychiatry between nonsurgical physicians and surgeons, although staff or residents in nonsurgical departments were more favorable about some aspects of psychiatry than staff or residents in surgical departments. The physicians with more interest in psychiatry as a career in the past were more likely to be positive about psychiatry as a comprehensive science and a rapidly expanding field of medicine. Physicians with older age were more likely to be positive about status and efficacy of psychiatry, role and functioning of psychiatrists than those with younger age. The results suggest that previous interest in psychiatry, age and clinical experience favorably influenced physicians' attitude toward psychiatry. In addition, development of models for psychiatric education will be needed to enhance physicians' attitude toward psychiatry.

KEY WORDS : Nonpsychiatric physicians · Attitudes toward psychiatry · Previous interest in psychiatry · Age · Clinical experience · Model for psychiatric education.

## 서 론

타과 의사들의 정신과에 대한 견해는 어느 정도 사회의 견해를 반영해 준다. 이들이 일반인들과 다른 것은

수련기간 중 또는 전문직 종사 중 정신과의사들과 접촉하고 정신과 환자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의사들의 태도가 직업으로서 정신과를 선택하는 것과 타과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타과 의사들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는 주로 정신과의사에 대한 인상과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Buchanan과 Bhugra 199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신과의사들보다는 오히려 일반의사들을 찾아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환자들의 21%만이 정신과의사 및 다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찾아가고 54%는 일차진료의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eiger 등 1978). 한편 일차진료의를 찾는 신체증상 호소자들의 15~50%는 정서장애 및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Hoepfer 1979). 그러나 일차진료의들은 이런 장애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환자를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Balter 1973; Goldberg 1978; Wheatly 1973).

최근 종합병원의 타과에서 정신과로 의뢰되는 자문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그 숫자가 정신과적 갈등이나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타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수에 비하면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경봉 1987). 이런 요인들 중에서 타과의사들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가 가장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Greenhill 1981; McKegney 1985). 예를 들면 타과의사들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부족, 정신과자문에 대한 회의와 피해적인 사고, 정신과자문에 대한 환자와 가족들의 저항에 대한 우려 등이 관련된다고 본다(이철 1977; 정환중 등 1984; 고경봉 1987; 고경봉 1991; Steinberg 등 1980; McKegney 1985). 한편 타과의사들의 정신과자문에 대해 저항을 보이는 이유 중 정신과에 대한 반감이 가장 크고(Steinberg 등 1980) 정신과를 비과학적으로 보는 견해도 환자의 정신과에 자문의뢰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Krakowski 1977). 또한 정신과자문환자들은 정신과외래에 내원한 환자들보다 타과의사의 치료적 권고를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여부는 타과 의사의 태도 여하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고경봉 1987).

최근 의학의 전문화추세는 의사들을 단순한 기술자로 만들어 환자의 개인적 및 심리적인 면이 무시됨으로써 의학의 비인간화경향을 심화시켰다. 반면 정신과 의사는 신체적인 면은 소홀히 하고 정신과적 문제에만 관심을 갖게 될 우려가 크다. 이로써 정신과와 다른 의학 분야는 양극화현상을 빚음으로써 양자 간에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치료가 어려워졌다(고경봉 1995). 더구나 신체적 질병의 발생, 경과, 및 치료에 미치는 심리적 및 행동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과 의사들과 정신과의사 간의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타과 의사들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는 자문조정정신의학의 발달은 물론 환자의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의대학생, 외과계, 내과계 의사 및 일반개원의들의 태도를 보면 정신과의사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혼동스러운' 사색가로 평가되었다(Harris 1981). 한편 정신과의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는 지적인 문제 및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 전인적인 환자의 치료, 타과의사들보다 덜 독선적인 접근방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Harris 1981). 직업으로서 정신과에 대한 견해를 보면 학생들은 정신과를 비과학적이고(Das와 Chandrasena 1988; Furnham 1986; Yager 등 1982) 부정확하고(Furnham 1986; Yager 등 1982) 비효과적이며(Nielsen과 Eaton 1981; Moos와 Yalom 1966) 다른 과에 비해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Bruhn과 Parsons 1964; Bruhn과 Parsons 1965; Moos와 Yalom 1966; Fishman과 Zimet 1972; Matteson과 Smith 1977; Zitmet와 Held 1975). 한편 국내 의대학생들의 대다수는 정신과 교육, 정신과자문, 정신분석에 관해 긍정적이었다. 또 정신과를 직업으로 고려했던 학생들일수록 정신과의사의 수입이 적은 것과 타과의사의 비판을 더 의식하고 있었다(Koh 1990). 이런 태도는 이미 아동기, 학교시절, 대학시절, 임상실습이전 및 임상실습 중에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Hill 1960). 또한 인격(Walton 1969; Kreitman 1962; Walton 등 1963; Pallis와 Stoffelmayer 1973; Toone 등 1979)과 임상실습이 정신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인자로 보고되었다(Ghadirian과 Engelsmann 1982; Burra 등 1982).

지금까지 타과 의사들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는 그 중요성에 비해 별로 연구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의학의 발전에 따른 타과 의사들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문제점을 알아낼 수 있는 동시에 앞으로 자문조정정신의학의 발달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1. 대 상

1992년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에 근무 중인 스태프 및 전공의들 중에서 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응급의학과와 외국에 체류 중인 자 및 외부 병원에 파견 중인 자들을 제외한 448명(스텝 231명과 전공의 2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무기명 설문지를 각 개인에게 배부한 후 나중에 기록된 설문지를 해당과의 비서를 통해 회수하였다.

이들 중 137명으로부터 설문지가 회수되어 30.6%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공란이 많거나 인적 사항이 기록되지 않아 분석이 어려운 8명을 제외한 129명을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중 스태프는 72명, 전공의는 57명이었다. 또한 내과계의사들은 60명, 외과계의사들은 69명이었다. 한편 스태프들 중 내과계 의사들은 35명, 외과계의사들은 37명, 전공의들 중 내과계의사들은 25명, 외과계의사들은 32명이었다. 스태프는 부교수 이상을 상급스텝(senior staff)으로, 조교수 이하를 하급스텝(junior staff)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연령층 및 직급별(상급 및 하급 스태프와 전공의) 분포는 Table 1과 같다.

## 2. 설문조사

타과의사들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Nielsen과 Eaton(1981)이 개발한 설문문의 한국 번역판(부록)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은 전체 19개의 문항으로 학문으로서의 정신과에 대한 인지도, 정신과자문의 효율성, 정신과교육, 정신과의사의 역할 및 기능, 의학에서의 정신과의 비중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부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로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Table 1. Demographic data

	Male N=117	Female N=12	Total N=129
	N(%)	N(%)	N(%)
Age			
25 - 29	21(17.9)	10(83.3)	31(24.0)
30 - 39	63(53.8)	1( 8.3)	64(49.6)
40 - 49	22(18.8)	0( 0 )	22(17.1)
50 - 59	11( 9.4)	1( 8.3)	12( 9.3)
Position			
Senior staff	22(18.8)	1( 8.3)	23(17.8)
Junior staff	44(37.6)	5(41.7)	49(38.0)
Residents	51(43.6)	6(50.0)	57(44.2)

한편 과거 정신과에 대한 관심도는 '과거에 정신과를 해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란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평가하였다. 각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1점)로부터 '아주 진지하게 고려했었다'(4점)까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한편 설문지에는 조사 당시 대상자들의 반응에 관해서는 철저히 익명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 3. 통계분석

스텝들과 전공의들 간, 내과계와 외과계 의사들 간, 내과계와 외과계 스태프들 간, 내과계와 외과계 전공의들 간, 상급 스태프들과 하급 스태프들 간, 연령층과 성별에 따른 과거 정신과에 대한 관심도의 비교는  $\chi^2$ 검정으로 처리되었다. 스태프들과 전공의들 간, 상급 및 하급 스태프들 간, 내과계와 외과계 의사들 간 정신과에 대한 태도의 비교는 각각 Student t 검정으로, 과거 정신과에 대한 관심도와 정신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는 Kendall상관성으로 처리되었다. 성별에 따른 정신과에 대한 태도의 비교는 Mann-Whitney U test로, 연령과 정신과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성은 Pearson상관성에 의해서 분석되었다.

## 결 과

### 1. 과거 정신과에 대한 관심도(Table 1)

전체 응답자들 중 48.1%(62명)는 과거 직업으로서 정신과를 고려한 적이 있었다. 전공의들은 스태프들에 비해 과거에 정신과를 직업으로 고려했던 경우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 $\chi^2=20.05$  df=3 p=0.0001). 그러나 내과계와 외과계 의사들 간( $\chi^2=0.10$  df=3 p=0.99), 내과계와 외과계 스태프들 간( $\chi^2=1.74$  df=3 p=0.63), 내과계와 외과계 전공의들 간( $\chi^2=0.95$  df=3 p=0.81), 상급 스태프들과 하급 스태프들 간( $\chi^2=5.21$  df=3 p=0.16)에는 각각 과거 정신과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층( $\chi^2=11.85$  df=9 p=0.22) 및 성별( $\chi^2=1.23$  df=3 p=0.75)에 따른 과거 정신과에 대한 관심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정신과에 대한 태도(Table 2)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상황이 호전될 것 같지 않으면 정신과자문을 권고하겠다'(95.3%),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85.9%)라

**Table 2.** Attitudes of non-psychiatric physicians about psychiatry and correlation with career interest in psychiatry

Questions	N=129 N(%)					Correlation with career interest in psychiatry $\tau$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b>Overall merits of the field of psychiatry</b>						
1. Psychiatry has advanced considerably in recent years in the biological treatment and understanding of schizophrenia and depression.	24(18.6)	53(41.1)	43(33.3)	7( 5.4)	2( 1.6)	0.19 <sup>a</sup>
2. Psychiatry is a rapidly expanding frontier of medicine.	20(15.5)	65(50.4)	20(15.5)	21(16.3)	3( 2.3)	0.03
3. Psychoanalysis is a powerful method for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52(40.3)	58(45.0)	12( 9.3)	5( 3.9)	1( 0.8)	0.11
4. Psychiatry is unscientific and imprecise.	1( 0.8)	12( 9.3)	16(12.4)	68(52.7)	32(24.8)	-0.03
<b>Efficacy</b>						
5. If someone in my family was very emotionally upset and the situation didn't seem to be improving, I would recommend a psychiatric consultation.	71(55.0)	52(40.3)	4( 3.1)	1( 0.8)	1( 0.8)	0.05
6. Psychiatric consultations for medical or surgical patients are only rarely helpful.	0( 0 )	11( 8.5)	6( 4.7)	74(57.4)	39(29.5)	-0.10
<b>Role definition and functioning of psychiatrists</b>						
7. Entering psychiatry is a waste of a medical education.	0( 0 )	1( 0.8)	3( 2.3)	23(17.8)	102(79.1)	-0.04
8 Today's physician does not have time to deal with patients' emotional problems.	25(19.4)	62(48.1)	2( 1.6)	25(19.4)	15(11.6)	0.02
9. With few exceptions, clinical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are just as qualified as psychiatrists to work with emotionally disturbed persons.	9( 7.0)	61(47.3)	29(22.5)	18(14.0)	12( 9.3)	0.03
10. Psychiatrists understand and communicate with people better than the average physician.	13(10.1)	50(38.8)	29(22.5)	34(26.4)	3( 2.3)	0.04
11. Psychiatrists are fuzzy thinkers.	1( 0.8)	8( 6.2)	18(14.0)	62(49.1)	40(31.0)	0.004
12. Psychiatrists tend to overanalyze human behavior.	12( 9.3)	64(49.6)	25(19.4)	26(20.2)	2( 1.6)	-0.06
<b>Possible abuses and social criticisms</b>						
13. Psychiatrists frequently abuse their legal power to hospitalize patients against their will.	1( 0.8)	12( 9.3)	59(45.7)	43(33.3)	14(10.9)	-0.10
14. Psychiatrists spend too much time seeing patients who don't need their care, while ignoring the problems of those most in need.	2( 1.6)	16(12.4)	38(29.5)	57(44.2)	16(12.4)	-0.03
15. On the average, psychiatrists make less money than other physicians.	5( 3.9)	16(12.4)	77(59.7)	26(20.2)	5( 3.9)	-0.009
<b>Career and personal rewards</b>						
16. Within medicine, psychiatry has high status.	6( 4.7)	50(38.8)	18(14.0)	53(41.1)	2( 1.6)	-0.003
17. Most nonpsychiatric faculty and house staff at my medical school are critical of psychiatry.	4( 3.1)	16(12.4)	37(28.7)	59(45.7)	13(10.1)	0.04
18. If a student is interested in psychiatry as a career, I will try to dissuade him or her.	0( 0 )	7( 5.4)	7( 5.4)	57(44.2)	58(45.0)	-0.12
19. Psychiatry is attractive as a discipline because it is more intellectually comprehensive than other medical careers : it involves many fields of study including biology, psychology, sociology, history, philosophy and literature.	12(9.3)	60(46.5)	31(24.0)	23(17.8)	3( 2.3)	0.32 <sup>b</sup>

\*The correlations are Kendall's  $\tau$  coefficients.

a :  $p=0.01$

b :  $p=0.0001$

는데 동의하였다. 반면 '정신과교육은 의학교육의 낭비다'(96.9%), '만약 학생들이 정신과를 택하려고 한다면 못하게 말할 것이다'(89.1%), '내과계 및 외과계 환자들에게 정신과자문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86.8%)는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텝들은 전공의들보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상황이 호전될 것 같지 않으면 나는 정신과자문을 권고하겠다'(t=2.67 df=127 p=0.009)는데 더 동의하였으나 '정신과의사는 환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력을 흔히 남용하고 있다'(t=-2.64 df=127 p=0.009)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반응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상급 스텝들은 하급 스텝들보다 '정신과는 급속히 성장하는 의학의 미개척분야다'(t=3.10 df=70 p=0.003)와 '의학내에서 정신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다'(t=3.37 df=70 p=0.001)에 대해 동의하는 쪽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반면 '임상 심리사와 사회사업사도 정신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정서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룰 자격이 있다'(t=-2.48 df=70 p=0.02)는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반응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내과계 스텝들은 외과계 스텝들보다 '정신과의사는 환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력을 흔히 남용하고 있다'(t=2.00 df=70 p=0.05)는데 동의하지 않는 반응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그리고 내과계 전공의들은 외과계 전공의들보다 '오늘날 의사는 환자의 정서적 문제를 다룰 시간이 없다'(t=2.06 df=55 p=0.04)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반응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과계와 외과계 의사들 간에 정신과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과거 정신과에 대한 관심도와 정신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Table 2)

과거 정신과를 전공하려고 생각했던 의사들일수록 '정신과는 최근 수년간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의 생물학적 치료와 이해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하였다', '정신과는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역사, 철학, 문학 등 많은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적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의학분야보다는 더 매력이 있다'는 반응에 유의하게 더 동의하였다.

### 4. 인구학적 특징과 정신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

연령이 많을수록 '의학내에서 정신과가 차지하는 비

중이 높은 편이다'(r=-0.27 p=0.002)와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상황이 호전될 것 같지 않으면 나는 정신과자문을 권고하겠다'(r=-0.21 p=0.02)는데 대해 유의하게 더 동의하였다. 반면 연령이 많을수록 '임상 심리사와 사회사업사도 정신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정서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룰 자격이 있다'(r=0.18 p=0.04)와 '정신과의사는 환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력을 흔히 남용하고 있다'(r=0.20 p=0.02)는데 대해서는 유의하게 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정신과는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역사, 철학, 문학 등 많은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적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의학분야보다는 더 매력이 있다'(u=432.50 p=0.02)는데 대해 유의하게 더 동의하였다.

## 고 찰

전체 응답자들 중 48.1%가 자신의 장래 직업으로 정신과를 고려한 경험이 있고 전공의들이 스텝들에 비해 과거에 정신과를 직업으로 고려했던 경우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는 점은 정신과에 대한 인기도가 전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해 준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보면 대다수가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상황이 호전될 것 같지 않으면 정신과자문을 권고하겠다',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라는데 동의하였다. 반면 '정신과교육은 의학교육의 낭비다', '만약 학생들이 정신과를 택하려고 한다면 못하게 말할 것이다', '내과계 및 외과계 환자들에게 정신과자문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라는데에는 동의하지 않아 대부분의 타과 의사들은 정신과 및 정신과의사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과자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분야의 발달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스텝들은 전공의들에 비해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상황이 호전될 것 같지 않으면 나는 정신과자문을 권고하겠다'는데 더 동의하였으나 '정신과의사는 환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력을 흔히 남용하고 있다'는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반응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상급 스텝들은 하급 스텝들보다 '정신과는 급속히 성장하

는 의학의 미개척분야다'와 '의학내에서 정신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다'에 대해 동의하는 쪽이 유의하게 더 많은 반면 '임상 심리사와 사회사업사도 정신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정서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룰 자격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반응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한편 연령이 많을수록 '의학내에서 정신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와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상황이 호전될 것 같지 않으면 나는 정신과자문을 권고하겠다'는데 더 동의하였다. 반면 연령이 많을수록 '임상 심리사와 사회사업사도 정신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정서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룰 자격이 있다'와 '정신과의사는 환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력을 흔히 남용하고 있다'는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은 연령과 임상경험이 타과 의사들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약물남용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대감의 정도에 있어서 상급 스텝들이 하급 스텝들보다 덜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경험의 역할이 정신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Buchanan과 Bhugra 1992).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내과계와 외과계 의사들 간 정신과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내과계 스텝들은 외과계 스텝들보다 '정신과의사는 환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력을 흔히 남용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더 동의하지 않았고, 내과계 전공의들은 외과계 전공의들보다 '오늘날 의사는 환자의 정서적 문제를 다룰 시간이 없다'는데 대해서 더 동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내과계 스텝들이나 전공의들이 외과계 스텝들이나 전공의들에 비해 일부 정신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와 대상자들이 동일한 다른 연구에서도 내과계 의사들이 외과계 의사들에 비해 정신과자문을 유의하게 더 많이 의뢰하였고, 입원환자들의 정신과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이희상과 고경봉 1994). 국내 다른 연구들에서도(이철 1977; 한진희 등 1990)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도 외과의사들과 산부인과의사들이 정신과 환자에게 대해 혐오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외과계 의사들이 정신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Dabkowski와 Laskowska-Przybylska 1980). 한편 장래 외과계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내과계를 지망하려는 학생들보다 정신과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Koh 1990).

과거 정신과를 전공하려고 생각했던 의사들일수록 '정신과는 최근 수년간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의 생물학적 치료와 이해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하였다', '정신과는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역사, 철학, 문학 등 많은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적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의학분야보다는 더 매력이 있다'는 반응에 더 동의하여 정신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점은 정신과를 직업으로 선택하려고 했던 의사들이 계속 심리적인 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들이 정신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물론 자문조정정신의학의 발전을 위해 중간적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정신과는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역사, 철학, 문학 등 많은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적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의학분야보다는 더 매력이 있다'는데 더 동의하였다. 그러나 여자들의 수가 남자들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들은 대부분의 타과 의사들이 정신과의사와 학문으로서의 정신과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임상경험이 정신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타과 의사들을 위한 정신과에 관한 교육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이들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타과 의사들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타과의사 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이용하여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정신과교육, 정신과자문, 정신분석학, 학생들의 정신과선택, 정신과의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텝들은 전공의들보다, 상급 스텝들은 하급 스텝들보다 정신과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견해를 보

였다. 한편 내과계 스텝들이나 전공의들이 외과계 스텝들이나 전공의들보다 일부 정신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내과계와 외과계 의사들 간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과거 정신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학문으로서 정신과에 대한 매력 및 발전에 대한 인지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정신과의 위치 및 효용성, 정신과의사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다. 이상의 결과들은 과거 정신과에 대한 관심도, 연령 및 오랜 임상 경험이 정신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시사한다. 또한 향후 타과 의사들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정신과 교육에 관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 :** 타과 의사 · 정신과에 대한 태도 · 과거 정신과에 대한 관심도 · 연령 · 임상적 경험 · 정신과 교육에 관한 모형.

## REFERENCES

- 고경봉(1987) : 정신과 자문환자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 *신경정신의학* 26 : 130-137
- 고경봉(1991) : 자문조정부서 발족전후 자문의들의 권고에 대한 자문의회의들의 일치도의 비교. *신경정신의학* 30 : 532-539
- 고경봉(1995) : 자문조정정신의학. 민성길편.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pp394-399
- 이 철(1997) : 정신과 자문조정 활동에 대한 타과의사들의 견해. *신경정신의학* 16 : 402-414
- 이희상 · 고경봉(1994) : 정신과자문에 대한 타과의사들의 태도. *정신신체의학* 2 : 98-106
- 정환중 · 송태형 · 변원탄 · 김명정(1984) : 정신과 자문에 대한 비정신과 의사의 견해 및 태도조사. *신경정신의학* 23 : 96-104
- 한진희 · 노왕구 · 김광수 · 유태열 · 채영래 · 백인호(1990) : 정신과 자문에 대한 타과 의사들의 인식과 태도. *신경정신의학* 29 : 1043-1057
- Balter MB(1973) : An analysis of psychotherapeutic drug consumption in the United States. In : Bowen RA(ed), *Proceedings of the Anglo-American Conference on Drug Abuse : Etiology of Drug Abuse*, vol. 1, London, Royal Society of Medicine, pp58-65
- Bruhn JG, Parsons OA(1964) : Medical student attitudes toward four medical specialties. *J Med Educ* 39 : 40-49
- Bruhn JG, Parsons OA(1965) : Attitudes toward medical specialties : two follow-up studies. *J Med Educ* 40 : 273-280
- Buchanan A, Bhugra D(1992) : Attitude of the medical profession to psychiatry. *Acta Psychiatr Scand* 85 : 1-5
- Burra P, Kalin R, Leichner P(1982) : The ATP 30 - a scale for measuring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 psychiatry. *Med Educ* 16 : 31-38
- Dabkowsik M, Laskowska-Przybylska H(1980) : The attitudes of physicians of various specialties towards the mentally ill. *Psychiatr Polska* 14 : 377-382
- Das MP, Chandrasena RD(1988) : Medical students' attitude towards psychiatry. *Can J psychiatry* 33 : 783-787
- Fishman DB, Zimet CN(1972) : Specialty choice and beliefs about specialties among freshman medical students. *J Med Educ* 47 : 524-533
- Furnham AF(1986) : Medical students' beliefs about nine different specialties. *Br Med J* 293 : 1607-1610
- Ghadirian AM, Engelsmann F(1982) : Medical students' attitude towards psychiatry : a ten-year comparison. *Med Educ* 16 : 39-43
- Goldberg D(1978) : Mental health priorities in a primary care setting. *Ann NY Acad Sci* 310 : 65-68
- Greenhill MH(1981) : Liaison psychiatry. In : Arieti S, Brodie HKK(eds),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Vol. VII, New York, Basic Books, pp672-701
- Harris CM(1981) : Medical stereotypes. *Br Med J* 283 : 1676-1677
- Hill D(1960) : Acceptance of psychiatry by the medical student. *Br Med J* 1 : 917-918
- Hoepfer EU(1979) : Estimated prevalence of RDC mental disorder in primary medical care. *Int J Ment Health* 8 : 6-15
- Koh KB(1990) :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psychiatry in a Korean medical college. *Yonsei Medical Journal* 31 : 60-64
- Krakowski AJ(1977) : Consultation-Liaison psychiatry, A psychosomatic service in the general hospital. In : Lipowski ZJ, Lipsitt DR, Whybrow PC(eds), *Psychosomatic Medicine - current trends and clinical*

- ical applications. New York, Oxford Univ Press, pp564-573
- Kreitman N(1962) : Psychiatric orientation : a study of attitudes among psychiatrists. *J Ment Sci* 108 : 317-328
- Matteson T, Smith SV(1977) : Selection of medical specialities : preferences versus choices. *J Med Educ* 52 : 548-554
- McKegney FP(1985) : Consultation-liaison psychiatry. In : Kaplan HI, Sadock BJ(eds),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4th ed. Baltimore/London, Williams and Wilkins, pp1219-1223
- Moos RH, Yalom ID(1966) :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psychiatry and psychiatrists. *Ment Hygiene* 50 : 246-256
- Nielsen AC, Eaton JS(1981) : Medical students' attitudes about psychiatry. *Arch Gen Psychiatry* 38 : 1144-1154
- Pallis DJ, Stoffelmayer BE(1973) : Social attitudes and treatment orientation among psychiatrists. *Br J Med Psychol* 46 : 75-81
- Regier DA, Goldberg ID, Taube CA(1978) : De Facto U.S. Mental Health Services System. *Arch Gen Psychiatry* 35 : 685-693
- Steinberg H, Torem M, Saravey SM(1980) : An analysis of physician resistance to psychiatric consultations. *Arch Gen Psychiatry* 37 : 1007-1012
- Toone BK, Murray R, Clare A, Creed F, Smith A(1979) : Psychiatrists' models of mental illness and their personal backgrounds. *Psychol Med* 9 : 165-178
- Walton HJ(1969) : Personality correlates of a career interest in psychiatry. *Br J Psychiatry* 115 : 211-219
- Walton HJ, Drewery J, Garstairs GM(1963) : Interest of graduating medical students in social and emotional aspects of illness. *Br Med J* 2 : 588-592
- Wheatly D(1973) : *Psychopharmacology in Medical Practice*. New York, Apleton-Century-Crofts.
- Yager D, Lamotte K, Nielsen A, Eaton J(1982) : Medical students' evaluation of psychiatry : a cross-country comparison. *Am J Psychiatry* 139 : 1003-1009
- Zitmet CN, Held ML(1975) : The development of views of specialties during four years of medical school. *J Med Educ* 50 : 157-166



## □ 부      록 □

\*다음은 정신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다음 중 한 문항도 빠지 말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치십시오.

문      항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모르겠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정신과는 최근 수년간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의 생물학적 치료와 이해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하였다.					
2. 정신과는 급속히 성장하는 의학의 미개척 분야이다.					
3.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4. 정신과는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하다.					
5.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상황이 호전될 것 같지 않으면 나는 정신과 자문을 권고하겠다.					
6. 내과 및 외과계 환자들에게 정신과자문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					
7. 정신과 교육은 의학교육의 낭비다.					
8. 오늘날 의사는 환자의 정서적 문제를 다룰 시간이 없다.					
9. 임상심리사와 사회사업사도 정신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정서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룰 자격이 있다.					
10. 정신과 의사는 일반의사들보다도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의사소통도 잘한다.					
11. 정신과 의사는 명청한 사색가다.					
12. 정신과 의사는 인간행동을 지나치게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13. 정신과 의사는 환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임원시킬 수 있는 법적 권력을 흔히 남용하고 있다.					
14. 정신과 의사는 가장 절실한 사람들의 문제는 무시하고 대신 돌볼 필요가 없는 환자를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15. 평균적으로 정신과 의사는 타과의사들보다 돈을 적게 번다.					
16. 의학내에서 정신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다.					
17. 대부분의 타과의사들은 정신과를 비판하고 있다.					
18. 만약 학생들이 정신과를 택하려고 한다면 못하게 말할 것이다.					
19. 정신과는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역사, 철학, 문학 등 많은 분야를 포함 하는 종합적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의학분야보다 더 매력이 있다.					